

## 정신역동적 사례공식화: 계획공식화 방법과 개별적 갈등공식화 방법을 중심으로

김 수 현

충북대학교

전문가 수의 부족이나 치료비 등의 제반 요인 때문에 최근에 오면서 단기치료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고 있다. 단기치료에서는 장기치료에서 보다 치료목표나 문제를 한정시키고, 초점화하고, 기법도 더 다양하게 절충하게 된다. 또한 단기치료에서는 시간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하므로 치료초기에 내담자의 문제를 제대로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계획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담초기에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치료계획을 설정하는 일을 사례공식화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역동적 사례공식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공식화 방법(Plan Formulation: PF)과 개별적 갈등공식화 방법(Idiographic Conflict Formulation: ICF)을 동일한 치료사례에 적용시켜 두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했다. 결과를 보면 PF방법에서는 충분한 평정자 훈련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평정자간의 신뢰도가 낮았다. 반면 ICF방법은 상당히 신뢰로운 것으로 밝혀졌다(소망과 공포요인). ICF의 다섯가지 요인 중 소망을 제외한 나머지 네요소에서 사례간에 내용의 차이가 있음이 반영되었다. PF의 목표(goal)와 ICF의 소망(wish)간에, 그리고 PF의 장애요인(obstruction)과 ICF의 공포(fear)간에는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F의 장애요인과 ICF의 회피적 결과(avoidant)간에, 그리고 PF의 외상적 경험(trauma)과 ICF의 스트레스(stressor)간에는 유사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 서 론

상담과정을 크게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 볼 때, 초기에는 내담자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

해하고 이에 적합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신뢰로운 상담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그 이후의 중기과정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초가 된다. 이런 점

에서 상담초기 2-3회의 내담자 평가작업은 지극히 중요한데, 상담기간이 단기일 수록 더욱 그러하다. 기간이 짧아질 수록 낭비할 시간이 줄어들게 마련이므로 상담에서도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만큼 다룰지가 초기에 분명해져야 한다(Malan,1963 ; Mann,1973 ; Marmor, 1979 ;Sifneos, 1973).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그리 쉽지않은 일로서 특히 치료초심자에게는 요원한 일이며 대부분이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게 마련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친다고 누구나 다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올바른 안내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지치료나 행동치료 또는 가족치료 등 비교적 최근에 발달된 치료접근법에서는 치료초기의 내담자 평가과정에 대한 지침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소개되고 단기치료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분석이나 정신역동적인 치료접근에서는 아직도 장기치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의 핵심문제 파악에 대한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 인간행동에 대한 관점이나 장애의 본질, 치료기법 등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므로, 치료과정과 기술을 일정한 형식으로 체계화하는 일은(특히 무의식적인 정서와 인지를 다루는 경우) 쉬운 일도 아니고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수준의 치료단계에 오르기 전까지는 경험적인 연구에 기초한 치료지침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아마도 이 단계를 넘어서서 순간순간의 내담자의 언어와 행동, 정서, 인지 등을 적절한 질문과 반응을 통해 치료자가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더이상 이러한 지침서는 필요 없어질 것이다.

상담초기에 내담자의 중심문제를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사례공식화라고 한다(Perry, Cooper, Michel, 1987). 치료초기에 문제를 정의하고 치료목표를 세우는 일은 치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또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몇가지 주요 접근법들이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행동치료나 인지치료 등 단기치료 위주의 방식을 사용하는 접근법에서는 초기평가 과정이 객관적으로 자세히 소개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공식화과정이 사례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는 정신역동적 사례공식화에 관심을 가진다. 1994년(김수현) 연구에 이어 본 연구 역시 정신역동적 사례공식화에 대한 예비연구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대표되는 두가지 공식화방법을 두개의 사례에 동시에 적용시켜서 두 방법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사례공식화 방법

정신역동적 사례공식화에는 현재 몇가지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으나 어느정도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검증되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1. 중심적 갈등관계 주제 방법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CCRT)

Luborsky와 Crits-Christoph(1976, 1977, 1990) 등이 임상작업에 기초해 처음 개발한 방법으로 대인간 관계패턴을 추출해내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심리치료 중에 내담자의 다양한

문제들은 대인관계 맥락상에서 잘 드러나는데 정신분석에서는 이러한 반복되는 대인관계 양상을 전이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점에서 CCRT는 Freud의 전이와 형태가 유사하다 (Luborsky, Crits-Christoph, Friedman, Mark, & Schaffler, 1991 ; Luborsky, Crits-Christoph, & Mellon, 1986 ). CCRT는 치료 상황이나 밖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역동이나 전이의 특성으로서 관계패턴에 초점을 맞추는데, 한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중심되는 관계패턴(recurrent central relationship pattern)을 찾아내서 이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관계패턴을 추론하게 된다(Barber, Crits-Cristoph, & Luborsky, 1990). 그리고 여기에 기초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종합하고 치료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또한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기초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CCRT 초기에는 치료자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담자의 이야기(narrative)에 관심을 가졌으나 점차 상호작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상담추억록에서 내담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관계적 일화(relational episode)를 뽑아낸다. 관계 에피소드를 찾을 때는 자신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명백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며, 각 에피소드에는 내담자가 관계하는 주된 타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 시절의 부모와 형제, 친구관계 뿐만 아니라 현재 치료자와의 관계나 치료 밖의 인간관계가 모두 포함된다. 치료나 치료단계를 대표하는 CCRT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에피소드 표집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치료초기의

두시간과, 후기의 두시간 정도(각각 10개 전후의 에피소드를 밝힘)의 면담내용을 자료분석에 사용한다. 뽑아 낸 상호작용 일화에서 1) '환자가 타인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내담자의 소망이나 기대(wish, need, intention-W), 2) '타인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반응(react)하는가(response of others -RO)' 3) '타인의 반응에 대해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response of self -RS)' 하는 세가지 요소면에서 CCRT를 추론하게 된다. CCRT 추론은 훈련받은 평정자가 주관적으로 적절한 내용을 만들 수 있으며(tailor-made system) 또는 기존의 유목(표준범주)들을 이용할 수 있다 (Crits-Cristoph, & Demorest, 1988).

추억록에서 CCRT를 분석하고 평정자간 일치도를 통해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여러 연구들(예: Crits-Cristoph, Luborsky, Dahl, Popp, Mellon, & Mark, 1988)에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CCRT의 타당도를 보기 위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시행되었다. 예를 들면, 상담회기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담 전의 부정적인 CCRT 점수는 Hopkins Symptom Checklist나 Health-Sickness Rating Scale 점수와 높은 상관성이 있었고 ( $r=.34, p<.05$ ), 후기 CCRT 점수는 상담 후에 측정된 위의 척도들의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CCRT가 효과적인 상담성과 측정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2. 계획 공식화 방법 (Plan Formulation : PF)

Weiss, Sampson과 Mount Zion 심리치료 집단이 개발한 공식화 방법으로, PF방법은 Plan Diagnosis Method(Curtis, Silbershatz, Sampson & Weiss, 1992)에서 발달되어 왔다. 이들 방법은 '인지적 정신분석이론' 이라고 할 수 있는 Weiss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Weiss에 따르면(Weiss, & Sampson, 1986) 무의식적 마음에는 병적인 믿음이 있어서 이것이 모든 정신병리의 발달과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어떤 종류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통제를 약화시킨다고 한다. 보통 병적인 믿음은 억압되어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이를 반증하기 어렵다. 또한 이는 잘못되고 부적응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의 적응노력의 일부로서 산출된 것으로 정신병리는 보통 어린 시절의 외상적 경험에 기초한 무의식적 병적 사고(idea)에서 나온다고 Weiss는 가정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의 고등정신기능의 역할을 중요시해서 현실적응은 인생의 요구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즉 어느 정도는 추동과 독립적이어서 적응을 향한 기대나 동기 등 독립적인 능력의 결과로써, 이 동기체계가 개인의 충동, 방어, 가치와 현실판단을 일관성있고 장기적인 적응목표로 통합시킨다. 다시 말해 환자의 행동은 충동과 방어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는 병적인 믿음을 확인하려는 시도로서 자아의 목적에 맞도록 자신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통제한다는 가정에 기

초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에 오는 환자는 갈등을 통달하려는 욕구와 통제하려는 무의식적 계획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된다. 환자의 계획은 치료를 통해 병적믿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그것들을 검증함으로써 병적믿음을 반증하려는 전략으로 생각될 수 있다(Curtis & Silbershatz, 1986).

PF 방법에서는 환자분석을 할 때 다음의 5가지 요소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1) 외상적 경험(trauma)

병적인 믿음이 발달되도록 이끈 사건이나 경험들을 말하며, 환자가 치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갈등 중에서 전형적인 것만을 밝힌다.

### 2) 장애요인(obstruction)

(공포, 죄책감, 불안 등과 관련되어 있는) 내담자의 목표추구를 막고 있는 비합리적인 병적 믿음을 말한다. 치료초기에는 무의식적일 수 있으며 내담자의 사고나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장애요인은 단순한 믿음과는 다르다. 믿음이 장애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연관된 부적인 결과가 있어야 한다.

### 3) 목표(goal)

내담자의 치료목표는 내담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가능한 행동, 정서, 태도, 능력 등이 될 수 있다. 문제의 기원을 기술하는 식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목표로 기술해야 한다.

### 4) 테스트(test)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데서 위협이나 안정성을 평가하도록 고안된 내담자의 행동을 테스트

트라고 한다. 내담자가 병적인 믿음을 반증하는 방법의 하나는 내담자의 테스트에 대한 치료자의 반응으로, 치료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 5) 통찰(insight)

내담자가 자신의 치료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지식이다. 병적인 믿음의 속성이나 기원, 드러나기 등에 관한 것으로 치료 초기에는 얻기 어렵다.

PF 방법은 개인사례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보통 정신역동 심리치료의 초기 2회 면접이나 처음 10회의 치료 축어록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각각의 평정자들이 위의 5가지 영역에 관해 가능한 내용들을 다 뽑아내고, 분석한 항목들을 합쳐서 무선으로 대표목록을 만든다. 다시 각항목에 대해 적합성 정도를 평정한 뒤 적합성 정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사례에 대한 전체 공식화를 만들게 된다.

인지적-정신분석이론으로 훈련된 치료자들이 대표목록에 포함된 문항들의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통합된 판단자 간의 일치도는 .89-.97이었다(Collins, & Messer, 1991). 내용타당도 면에서 보면 분석의 여러 수준에서 PF요소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Weiss와 동료들이 주장하는 이론의 필수적 요지는 반영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밖에 예시타당도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로서 Silberschatz, Fretter & Curtis(1986)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계획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치료자 개입과 환자의 계획 간의 양립성) 정도와 치료시간 내의 경험척도(Experiencing Scale) (Klien, Math

ieu-Coughlan, & Kiesler, 1986)가 정적인 상관을 보임으로써 PF가 효과적인 치료성과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3. 개별적 갈등 공식화 방법

### (Idiographic Conflict Formulation : ICF)

Perry, Augusto, 및 Cooper(1989) 등이 개발한 정신역동적 사례공식화 방법으로 개인의 독특한 역동적 갈등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ICF 방법은 역동적 현상을 조직화해서 추론된 역동패턴을 타인에게 입증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 준다(평가자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가능한 증거들을 나열해야 한다). ICF에서도 CCRT처럼 평정자들이 주관적으로 그리고 표준화된 목록과 도구를 사용하여 면담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서는 50분 짜리 역동적 평가면담이 적어도 한개가 필요하다. 평정자는 먼저 5가지 주요 갈등영역에 대해 ICF를 내고 뒤에 필요에 따라 정신역동 갈등척도(Psychodynamic Conflict Rating Scale : PCRS)(Perry, 1990a), 또는 표준화된 욕구와 공포 목록(Perry, 1990b)을 사용해서 ICF의 특정한 갈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갈등내용은 Erikson(1963, 1968)이 기술한 8가지 사회심리적 발달단계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앞의 두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요한 영역을 포함하는 녹화(녹음)된 정신과적 면담을 사용한다. ICF에서 판단자는 주요 갈등요소에 관해 기술하게 되는데 5가지 주요 갈등 영역은 다음과 같다.

### 1) 소망(wish)

내담자의 인생과 정신병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소망을 말한다. 보통 2-4개의 중요한 중심 소망이 나온다. 역동적 소망은 타인을 지배하고 싶다는가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와는 달라서, 다양한 표면적인 행동이나 공상, 경험 등에서 원인적 역할을 한 것을 말한다.

### 2) 공포(fear)

내담자가 피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믿음과 기대, 또는 혐오적인 경험을 말하는데 이것 역시 단순한 혐오나 공포증(phobia)과는 다르다(정서 통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함은 역동적 공포지만 공포연설 두려움이나 폐쇄공포증은 오히려 증상적 결과로 온 것임). 왜냐하면 이는 행동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소망과 반대되도록 작용하는, 상쇄작용을 하는 이에 필적할 만한(countervailing) 공포를 말한다. 보통 공포의 수는 소망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공포는 가끔 갈등을 겪도록 만드는 소망을 상쇄시키기도 하지만 서로 반대되는 W-W, 또는 F-F 갈등도 보편적이다(예: 의존욕구와 자율성/독립성 욕구가 서로 갈등할 수 있으며, 의존욕구와 믿을 만한 타인을 믿는데 대한 두려움이 공존할 수도 있다).

### 3) 산물(resultant)

소망과 공포의 두 영역에서 갈등의 결과를 기술하는데, 구체적이고 중심적인 소망, 공포에 대한 이들의 관계를 가정한다. (1) 증상적 결과(symptomatic outcome)-특정한 정신과

적 증상, 증상행동과 갈등적인 소망, 공포 사이의 관계, 또는 주관적 고통이나 손상과 연관된 행동을 기술한다(예: 자신의 감정조정을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소망과 그들에게 분노나 불일치를 표현하면 비난받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가끔 dysphoria 경험). 증상의 의미와 기능은 이 부분에서 다룬다. (2) 회피적 결과(avoidant outcome)-내담자가 자신의 갈등경험을 회피하거나 가라앉히는 특징적인 방법을 기술하는데, 갈등의 인식을 막는 성격적 병리(character pathology)를 기술한다(예: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타인을 믿는 것은 피하기 위해, 밀접한 관계는 회피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하다/권위적 인물을 대하면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분노인식을 막는다. 따라서 자기주장을 제한하게 된다). 갈등인식을 막는데 사용하는 특정한 방어기제와 그 결과로 오는 제한점도 밝힌다. 어떤 경우는 결과물이 증상특성과 회피특성을 둘다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과가 고통과 연관이 되고 또 소망이나 공포의 인식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 4) 특정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내담자의 갈등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스트레스 근원의 특성을 정의한다. 주관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것이 무엇이며 이들의 구체적 의미는 어떤지를 알아낸다. 내담자가 자신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는지 또는 갈등에 적응해 왔는지도 살핀다(예: 내담자의 지배반응에 대한 공포는 의견이 불일치 될 때 촉발되는데, 특히 협조적 작업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그러하다).

### 5) 갈등에 대한 최적 적응수준

내담자가 보여준 갈등에 적응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들을 기술한다. 이는 현재 내담자에게 가능한 잠재적으로 유용할 해결책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과거,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포함시킨다.

## 4. 합의된 반응 방법

### (Consensual Response Method : CRM)

집단의 판단자에 의한 평정은 한 판단자의 평정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으로, 복잡한 지침체계를 개발한 다른 방법들과는 달리 CRM은 반자연적인 (seminatural) 역동적 공식화를 평균화한다. 여기서는 다양한 공식화를 어떻게 평균화하는가가 문제이다. 임상가는 녹화된 자료에서 독립적으로 공식화를 끌어내는데 환자가 무엇때문에 치료에 오게 되었나, 개인역사, 특징적인 대인관계, 성격, 갈등, 방어 그리고 정신역동적 주제 등을 포함한다. 임상가들이 논의한 뒤, 원래 공식화를 리뷰하지 않고 각자 다시 공식화를 쓴다. 각 공식화는 사고단위로 나뉘어서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리뷰되고 유사의미를 가진 단위들을 밝힌다. 전기적 자료와 증상기술 외에 공통되는 사고단위는 일치된 단일 일화에 포함된다.

## 5. 역할관계 모델 공식화

### (The Role-Relationship Models:RRMs Formulation)

Horowitz(1989)가 개발한 방법으로, 이는 자기-쉐마(self-schema)와 다른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자기-쉐마, 타인의 쉐마, 타인을 향한 기대된 행동 또는 정서(wish), 타인의 반응, 이같은 반응에 대한 자신의 평가, 이 반응에 대한 타인의 기대된 자기-평가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4가지 구체적 마음으로 (dreaded, desired, problematic, compromise) 다중적인 마음상태를 공식화할 수 있다. 또한 RRMs에서는 self의 여러 측면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결과들이 서로 다른 마음상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물론 이들의 상호작용 패턴까지 보여준다 (Barber,& Crits-Christoph, 1993).

위에서 주된 5가지 공식화 방법을 간략히 살펴해보았다. 이들 중 앞의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뒤의 것들 보다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것들은 주로 환자의 주된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패턴이나 갈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들으로써 정신내부 기능이나 대인관계 특성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각 방법은 나름대로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다르다. CCRT는 반복되는 대인관계 패턴에, PF는 치료에서 나타나는 전이, 저항, 통찰과 관련된 역동적 특성에, ICF는 스트레스와 내적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 연구목적

본 연구자는 우선 심층적이고 중요한 문제영역을 비교적 잘 정리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 PF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그동안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표준화된 목록을 가진 CCRT 방법과 동시에 같은 사례에 적용시켜 보았다(김수현, 1994). 결과를 보면, CCRT 분석에서는 두개의 사례에서 '성취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다'든가,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다'는 주된 소망이 유사했다. 그러나 유사성 평정에서 두 사례는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머지 소망에서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CCRT는 비록 적은 차이라도 잘 반영이 되는 신뢰로운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W, RO, RS 세가지 요소에 대해 정리한 빈도자료를 위계적 선형로그분석한 결과 평정자가 8개 목록 범주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평정자가 사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평정자간 신뢰도는 상당히 안정적임(신뢰로움)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본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시도한 PF 방법에서는 대표목록의 항목에 대한 적합성 점수에 기초해 세명의 평정자간 신뢰도를 측정할 결과 대체로 낮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 중에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인 문항들은 테스트와 일부의 장애요인과 통찰이었다. 논의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내담자의 테스트는 목표나 장애요인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평정자가 추론해 내기가 쉬울 수 있다는 점에 일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뢰도가 낮아진 무엇

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평정자들의 개인차와 평정자 훈련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관점에서의 개인차를 줄이고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분석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철저한 사전 훈련과 연습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이 결여된 분석작업은 개개인의 추측결과만 나열한 쓸모없는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CCRT의 W와 PF의 goal간의 유사성 검증에서는 단일한 사례(강박증)에서 W와 goal 비교는 동일사례의 goal과 통제사례(신체화)의 W 비교보다 더 유사함으로써 CCRT의 W와 PF의 goal이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서 CCRT와 PF 두가지 공식화방법은 전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만 부분적인 내용에서는 일치되는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공식화 방법들 간에 누구나 타당하다고 동의할 수 있는 공통내용 부분을 늘려나가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 정신내부적 역동을 잘 기술해 보고자 시도한 PF 방법은 CCRT 방법에 비해 치료초심자에게는 그리 적합치 않은 방법이라는 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지만(자칫하면 사례의 독특성을 일부 잃어버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CCRT에서와 같이 표준화된 측정방법이나 항목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공식화 방법들은 특히 치료초심자를 위해서 더욱 필요한 것으로, 타당한 객관적인 지침이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위의 연구에서 CCRT는 신뢰롭고 타한 공식화방법임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이는 주로 관계패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치료를 통한 대인관계 패턴 양상의 변화를 측정하는데는 더 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자는 반복되는 대인관계 패턴을 찾는 것보다는 상담초기에 좀 더 심층적이고 역동적인 전반적인 문제이해에 관심이 있으므로 또 하나의 공식화 방법인 ICF가 사례분석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PF방법과 다시 한번 비교해보고자 한다. 두가지 방법은 모두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정신내부적 소망과 갈등에 관심을 가지는 면에서는 유사하나 분석되는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고, 하나는 (PF) 평정자의 주관적인 분석에만 의존하는데 비해 또 다른 하나는(ICF) 주관적인 평정에 덧붙여 표준화된 객관적인 도구들을 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무의식적인 소망과 갈등을 밝혀 내는데 주관적 평정에 이어 표준화된 목록을 사용하면 평정자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이전 연구(김수현, 1994)에서 PF의 goal은 CCRT의 wish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ICF의 wish 요소가 PF의 goal 요소와 유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밖에도 분류지침을 상세히 검토해 보면 서로 공통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ICF의 fear와 PF의 obstruction, ICF의 avoidant와 PF의 obstruction, ICF의 avoidant와 PF의 test, 그리고 ICF의 stressor 와 PF의 trauma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유사성 비교는 PF의 해당 요소와 ICF의 해당

요소 간의 유사성 정도를 평정하는 것만으로는 비교준거가 없으므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Perry, Luborsky, Silbershatz 그리고 Popp(1989) 등이 사용한 방법을 따를 것이다. 즉 서로 다른 잘못 짝이 지워진 사례들을 통제집단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동일한 사례에서 fear와 obstruction 간의 유사성 정도가 서로 다른 사례들의 짝에서 fear와 obstruction 간의 유사성 정도보다 더 높은지를 살펴보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개의 정신역동지향적 단기 상담사례를 대상으로 역동적인 공식화방법인 PF방법과 ICF방법을 사용해서 내용분석을 실시한다. 서로 다른 공식화방법을 두개의 사례에 동시에 적용시켜 분석함으로써 분석과정 상에 나타나는 제반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분류요소나 내용 상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들 방법을 실제사례에 적용시키는데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과 유의사항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과정이나 성과보다는 상담초기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용 등을 올바르게 찾아내는 사례공식화에 관심이 있으므로 상담초기 2,3회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 1. 사례 선정

PF방법과 ICF방법은 정신역동적 공식화방

범이므로 정신역동지향적 심리치료 방법에 의해 치료된 내담자 사례를 선택했다. 본 연구자가 실시한 상담사례로서 사례 1(정신신체증상)은 13회, 사례 2(우울증)는 8회로 종결된 단기 사례이다. 위의 사례들에서 내담자의 근본적인 핵심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담시작 전에 내담자가 불편하다고 호소했던 신체적인 통증이 사라지고 대인관계에서의 불편이 크게 감소되어 일차적인 상담목표는 일단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내담자의 동의하에 종결하게 되었다. 한 사례(우울증)의 내담자는 졸업이 가까워서 종결시기가 미리 예정된 경우이고 나머지 사례는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

## 2. 사례 소개

### 사례 1 (정신신체증상 내담자)

내담자는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이다. 첫 시간의 주요호소내용은 수업시간 중에 발표하기 전에 구역질이 심하게 나고 배가 아프며, 발표가 끝나고 나면 허리가 뒤로 꺾어지는 듯 하고 끊어지듯이 아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증상은 군대에 갔다와 복학한 뒤에 점차로 심해졌다고 한다. 내담자는 스스로를 불안이 심하고 완벽하게 보이려 애쓰는 사람이며 실수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한다고 했다.

내담자는 어려서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해서 은연중에 자신을 남과 계속 비교해 왔다. 그러나 마음 밑바닥에는 자신의 환경과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했다. 상

냥한 배려가 없는 어머니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순종했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반항심이 컸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가진 신앙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정해진 규칙의 틀에 맞도록 늘상 통제하면서 살아왔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죄책감이 컸다. 자신이나 가족들에서 걸뺏되었다고 생각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해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어느 순간에 이 기대가 깨지면 심한 좌절과 배반감을 맛보곤 했다. 가장 결정적인 상처를 준 경험은 군대에서 모시고 있던 상사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맹목적이고 헌신적으로 대했던 관계가 뜻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끝나 버리자 내담자는 허망함과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자세한 내용은 내담자사향 보호문제로 생략함). 그러한 과정에서 내담자는 존경하는 상사의 마음에 들도록 처절할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고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까지도 자신의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극도의 긴장감의 연속이었고 이러한 긴장과 불안은 복학한 뒤에 학교생활에서도 이어졌다.

1회와 2회에서 내담자의 지기 싫어하고 지나치게 완벽하고자 하는 것, 남에 대한 의존 문제를 주변의 친구나 군대상사와의 관계와 연결지어 다루면서, 군대생활에서의 고통과 실망, 긴장감에 대해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했다. 3회에 왔을 때는 사람들을 만날 때 긴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토증과 허리가 아픈 증상은 사라졌다고 했다. 이후의 상담시간은 내담자의 경직된 사고와 이에 따른 반복되는 대인관계 패턴을 인식시키고(빈의자 기법 사

용) 자유로운 정서표현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사례 2 (우울증 내담자)

이 사례(여대생)는 전형적인 우울증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오랫동안 우울한 상태가 계속 되었고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대인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걱정이 지나치고 주의집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사회에 나가서도 대인관계가 안되면 어쩌나 하는 급박한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상담을 신청했다.

내담자의 주 호소는 학교생활이 힘들고 사회생활이 안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고민 때문에 휴학을 했으나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시키자 어려서 기억은 잘 나지는 않으나 자기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도 없고 내성적이라고 했다. 내담자의 마음에 각인된 생각은 '나는 외모가 못나고 성질이 못돼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무시하며 관심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관심을 받고 싶은 생각이 아주 많으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지며 질투심도 강하다고 했다. 집안식구와의 관계도 어려웠고 특히 어머니와는 자주 부딪치고 복수심도 강했다.

주변인과 사랑을 주고 받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인관계에서는 관계를 회피하거나 또는 공격적인 언행으로 자신이 원하는바와는 다른 결과를 낳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의 밑바닥에는 남에게 다가가면 거절당할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고 스스로 시도하기 보다는 남이 먼저 다가와서 베풀어주기를 열망했다.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없어서 사회적 기술도 많이 떨어졌다.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울고 우울하다고 했으나 상담시간 중의 태도는 저항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을 자주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의 힘은 있는 내담자였다. 처음에는 내담자의 외롭고 슬픈 마음을 많이 받아주었으나 점차로 내담자의 행동을 직면시키고 스스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도했다. 내담자도 이러한 사실을 상당부분 시인했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 중에 잘못된 대인관계 기술을 교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분도 점차로 나아지고 자신감도 일부 생겨나기 시작했다. 혼습과정이 더 필요한 경우였으나 시간문제로 조기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 3. 평정자

3명의 평정자들이 PF 방법을 사용해서 각자 사례의 내용을 분석한 뒤 다시 대표목록의 적합성 정도를 평정했다. 또 다른 평정자 4명은 각각 그리고 2명씩 한팀이 되어 ICF 방법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총 7명의 평정자가 사례의 내용분석에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현재 상담장면에 종사하는 상담자이다. PF의 요소와 ICF의 요소간의 유사성 평정에는(전문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대학원 졸업 또는 재학 중인

학생 3명이 참여했다.

평정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차이를 줄이기 위해 평정자들은 집단 별로 여러번 같이 만나서 다른 사례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 4. 자료분석 방법 및 절차

녹음된 면담내용을 먼저 축어록으로 풀고 이 내용을 분석자료로 사용했다.

##### 1) PF 분석

- (1) 평정자들은 초기 2회 면담의 축어록을 독립적으로 검토한 뒤에 각자 진짜와 대안적인 이야기를 만든다. 목표, 장애, 외상, 테스트, 통찰 등 5개 영역에서 진짜 항목과 대안적 항목을 거의 같은 수로 포함시키는데 양자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Weiss 등의 분석방법에 따라 대안 항목을 포함시킨다. 단 외상에서만은 대안이 없이 진짜 항목만 1개를 만든다.
- (2) 세명 평정자의 목록에 있는 항목들을 모두 합쳐서 대표목록을 만든다. 각 항목들은 누가 만들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무선으로 배열한다.
- (3) 5가지의 대표목록들에서 각 항목들이 그 사례의 내용에 적절한지 그 정도를 0-4점 까지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평정한다.
- (4) 목록의 적합성 평정에서 평정자들 사이의 일치도를 계산함으로써 신뢰도를 측정한다.
- (5) 적합성 정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문항들을 중심으로 전체 사례공식화를 만든다. 목록을 작성할 때는 단기치료를 위한 내담자의 계획을 추론하고 있다는 것과 어떤 목표나 통찰은 단기치료에서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다. 또한 다중적인 문제를 한 항목에 혼합시키지 말고 단일한 것으로 분리시키며, 사용하는 절이나 단어는 신중히 선택하고 과장을 피했다.

##### 2) ICF 분석

- (1) 네명의 평정자들은 상담축어록을 읽고 먼저 제 각각 5개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을 뽑아낸다. 그리고 추론된 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증거들을 동시에 덧붙인다.
- (2) 주관적인 평정을 한 뒤에 평정자는 표준화된 소망, 공포 목록(Perry가 1995년에 개정한 목록을 본 연구자가 번안해서 사용함)에 따라 다시 해당되는 소망과 공포 항목에 표시한다. 표준목록으로 다시 평정한 이유는 평정자의 주관적인 평정을 이와 유사한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변환시킴으로써 평정자간의 차이를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례 내용의 비교를 같은 수준 안에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3) 위에서 처럼 각자가 평정한 뒤에 평정자들은 두명씩 두 집단을 만들어 같은 집단원끼리 각자가 평정한 내용을 함께 의논한 뒤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ICF를 만든다. 분석되는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평정자들은 축어록을 여러번 읽고 통합적인 ICF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분석 전에도 각 집단원끼리 여러번의 논의를 거쳐 가능한한 같은 기준을 분석내용에 적용시키고자 노력했다.
- (4) 각 요소에서 뽑아 낸 내용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사례공식화를 만든다.
- (5) ICF 분석에서 평정자간의 일치도를 계산했다. 평정자들의 주관적인 평정내용을 일치도 계산에 사용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일정한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표준화된 소망과 공포 목록에 평정한 빈도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표준화된 목록이 없는 나머지 세요소에 대한 평정자간 일치도는 제외).
- (6) ICF의 5가지 요소 각각에서 사례 1과 사례 2의 분석결과가 서로 차이가 있는가(유사성 평정)를

검토했다. 각 요소들에서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성 비교 쌍을 만들고 평정자 집단 1과 집단 2의 유사성 비교 쌍을 만들어 둘 사이의 차이검증을 실시했다. 서로 다른 사례에서 요소분석의 결과가 같은 사례의 두 집단간 유사성보다 낮다면 이는 ICF 방법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 3) PF 요소와 ICF 요소 간의 비교

PF 요소 전체와 ICF 요소 전체를 비교 하는 일은 양쪽에 동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비교의 준거가 없음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분석지침을 검토한 뒤 각 구성요소 중에서 유사한 내용을 다룬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비교하게 된다.

이전의 연구(김수현, 1994 ; Perry, Luborsky, Silberschatz, & Popp,1989)에서 CCRT의 wish와 PF의 goal은 유사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CF 방법을 사용함으로 PF와 ICF 간의 비교가 되는데, 따라서 CCRT의 wish와 유사한 PF의 goal이 동일한 명칭이 붙은 ICF의 wish 요소와 유사한지를 검토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ICF의 fear와 PF의 obstruction, ICF의 avoidant와 PF의 obstruction, ICF의 avoidant와 PF의 test 그리고 ICF의 stressor와 PF의 trauma 간의 유사성을 검토했다.

유사성 평정을 위해서 각 공식화방법에서 뽑은 비교하고자 하는 요소의 내용을 요약한 뒤에 전체 요약내용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7점 척도에 평정시켰다. 그리고 유사성이 평정된 짝들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했다.

## 연구결과

### 1. PF 분석결과에 따른 사례공식화

PF의 5가지 요소들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통 한 요소에서 10-20개 정도의 문항들을 모을 수 있었다. 이들 중에 적합성 점수가 높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공식화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지면관계상 사례 1만 제시).

#### 사례 1 (정신신체증상 내담자)

내담자는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내지 못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무시당할 것이라고 믿기때문에 이기려고 늘 안간힘을 쓰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집착해왔다. 따라서 항상 남을 의식하면서 긴장하고 지나치게 조심하면서 살았으므로 쉽게 지치고 스스로를 질책했으며 내면적인 불안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군대에 가서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은 것이 특히 결정적인 촉발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내담자는 사회적 기준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세워놓은 높은 기준 때문에 자신을 들볶고 있다는 사실과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진정한 자존심이 부족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체력이 딸리고 능력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신체적인 원인보다는 불안과 긴장이 심해서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타인의 인정여부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왜곡된 비합리적 신념(실수 하면 남이 나를 우습게 볼 것이다. 특출나지 않으면 무능한 것이다.)을 수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자기평가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내담자는 상담자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상담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려 할 것이다. 완벽하게 보이지 않으면 멀리할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상담시간 중의 의무를 고의로 어김으로써 상담자가 자신을 멀리 하는지도 시험하려 할 수 있다.

## 2. PF 분석에서 평정자간 신뢰도

표 1. 평정자간 신뢰도

구 성 요 소	평정자 1-2	평정자 1-3	평정자 2-3	평정자 1-2-3
사례 1				
goal	.5202	.0815	.4361	.4893
obstruction	.3232	-.0143	-.0307	.1257
test	.7462	.5330	.5000	.7357
trauma	-.051	-.1535	.4920	.5767
insight	.4686	.3301	.2022	.5415
사례 2				
goal	.1920	.4560	.2143	.5380
obstruction	.2761	-.0247	.2236	.2751
test	.	-.3780	.	.8571
trauma	.0913	-.3265	.5960	.0455
insight	.3780	.0835	-.1104	.2376

PF의 다섯가지 구성요소의 각 항목에 대해 세 평정자가 적합성 정도를 5점 Likert 척도상

에 평정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의 평정자간 신뢰도이다. 두 평정자간의 신뢰도는 피어슨 적률상관계수이며, 세 평정자간의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계수이다.

표 1에서 보면 평정자 1과 2, 평정자 1과 3, 평정자 2와 3 모두에서 대체로 낮은 신뢰도를 보이지만 평정자 1,2,3간의 일치도는 부분적으로는 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정자 1,2,3, 간에 높은 일치도를 보인 요인은 사례 1과 사례 2 모두에서 테스트로 나타났다. 표 1에서 신뢰도가 표시되지 않은 곳은 평정자의 평정 점수가 모두 같기 때문이다. 즉 표준편차가 0이므로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3. ICF 분석결과에 따른 사례공식화

ICF 분석에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5가지 요소에 대해 평정자 개인의 주관적인 평정을 먼저 한 뒤에 소망과 공포 두 요소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목록을 적용시켜 다시 분석했다. 4명 평정자의 5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내용은 다양하고 양도 많아서 그 중의 일부를 발췌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 요소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이를 종합하여 전체 사례공식화를 하고자 한다(지면관계상 사례 1만 제시).

### 1) 사례 1

소망: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남들 보다 우월하고 완벽해지고 싶은 소망, 자신을 책임지고자 하는 욕구,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고 싶은 욕

구(이상의 소망은 주관적 평정에서 끌어낸 내용이며, 표준화된 목록의 평정 결과는 뒷 부분의 표2와 표3을 참조하시오) 등이다. 소망 목록을 보면 7번(1단계), 16번(2단계), 19번, 20번(3단계) 등이 빈도가 높은 항목이다. 주관적 평정과 객관적 평정에서 나온 결과가 상당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공포:** 열등하고 능력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남에게 실수하거나 부족한 면을 보이면 안된다. 강력한 사람에게 거부당하는데 대한 두려움 등이다. 공포 목록에서는 9번(1단계), 13번(2단계), 18번, 19번, 20번(3단계)이 높은 빈도를 보인다. 공포 역시 양쪽의 평정내용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유사하다.

**산물(증상적 결과):** 발표 전의 구역질과 발표 후의 허리통증, 시험볼 때의 긴장감과 팔에 쥐가 나는 것, 전화도청을 의심하고 미행당하는 느낌을 가지는 것, 잔인한 구타행위나 충동적인 생각들, 집중이 되지 않음.

**산물(회피적 결과):** 자신의 욕구나 희망보다는 권위자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내사, 동일시해서 이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행동패턴을 보인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자기에게 떨어진 일을 자신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아예 포기한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합리화시킴으로써 자신을 끊임없이 긴장시킨다.

**구체적인 스트레스:** 남의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하는 상황(타인의 시선의식), 경쟁을 통해 어떤 평가가 내려지는 상황, 정해진 규칙이나

규율에 맞추어 생활해야 되는 상황.

**최적의 적응수준:** 군대에 가기 전의 적응수준은 지금보다 나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내담자의 현재 적응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신을 드러내려 노력하고 있으며 인지적으로는 받아들이나 진정한 통찰은 부족한 듯하다. 그러나 이 내담자는 지적인 능력이 높은 것 같고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강점들이 자신감과 정체감 형성을 돕고 목표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례공식화:** 내담자는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완벽해지고자 한다. 그러나 자신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 이를 감추기 위한 끊임없는 긴장과 표현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경쟁심이 유발되고 평가를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더욱 힘들어진다. 과거나 현재의 적응수준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힘이 있는 내담자이므로 상담을 통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ICF의 wish 빈도

동기	단계	판단자 목록 번호	사례 1						사례 2										
			1	2	3	4	1,2,3,4 총점	팀A	팀B	두팀 총점	1	2	3	4	1,2,3,4 총점	팀A	팀B	두팀 총점	
W	1 단계	1																	
		2										1			1				
		3															1	1	
		4		1			1				1	2			3	1	1	2	
		5		1	3		4	1		1	1		1	1	3	1	2	3	
		6																	
		7	1	4	2		7	1	1	2	4	9	5		18	4		4	
		8		1			1				1	1		1	3	1	1	2	
						13			3				28				12		
W	2 단계	9	1			1	2	1	1	2		1		1	2				
		10																	
		11			1	1	2												
		12											1	1	2				
		13	1	1			2	1		1									
		14	1				1												
		15	1				1												
			1	4	6	11		9	9			1		1					
						19			12					5					
W	3 단계	17											1		1				
		18	1	1			2	1		1									
		19	1	2	6	1	10	3	6	9									
		20	1	2	6	3	12	1	3	4									
		21			1		1												
		22		1		1	2		1	1	1	1	2	1	5	1		1	
						27			15				6				1		
W	4 단계	23	1	1	2		4	1	2	3									
		24			1		1		2	2									
							5			5				0					
		1-4단계 총 점					64			35				39			13		



표 3. ICF의 fear 빈도

동기	단계	관단자 목록 번호	사례 1							사례 2								
			1	2	3	4	1,2,3,4 총점	팀A	팀B	두팀 총점	1	2	3	4	1,2,3,4 총점	팀A	팀B	두팀 총점
F	1 단계	8		1			1											
		9	1	1	1		3	1		1								
		10											1		1			
		11		1				1					5	5	10		1	1
						11			1					59			22	
F	2 단계	12			3		3											
		13	2	2	4	2	10	2		2			1		1			
		14			1	1	2						2		2			
		15									1				1			
		16		2		1	3	2	1	3								
		17																
						24			8					4			0	
F	3 단계	18	6	4	5	3	18	4	4	8			1		1			
		19	2	3	8	3	16	2	5	7								
		20	1	1	5	3	10	1	4	5	1				1			
		21	1		1	1	3	1	3	4			2	2	4			
		22																
						47			20					6			0	
F	4 단계	23																
		24									1	1	2		4			0
						0			0					4			0	
		1-4단계 총점				82			29					73			22	

표 4. Wish 1단계에 대한 이원상호작용효과

Effect Name	DF	Partial Chisq.	Prob	
범주*평정자	7	.820	.9972	평정자 1-2간
범주*사례	7	.820	.9972	
평정자*사례	1	2.144	.1431	
범주	7	58.823	.0000	
평정자	1	4.615	.0317	
사례	1	4.615	.0317	
범주*평정자	14	4.528	.9914	평정자 1-3간
범주*사례	7	3.120	.8736	
평정자*사례	2	1.018	.6012	
범주	7	39.081	.0000	
평정자	2	17.024	.0002	
사례	1	3.291	.0696	
범주*평정자	21	3.990	1.0000	평정자 1-4간
범주*사례	7	1.024	.9944	
평정자*사례	3	.000	1.0000	
범주	7	17.177	.0163	
평정자	3	17.718	.0005	
사례	1	7.361	.0067	
범주*평정자	7	10.486	.1627	평정자 2-3간
범주*사례	7	5.357	.6164	
평정자*사례	1	.079	.7788	
범주	7	61.306	.0000	
평정자	1	1.594	.2067	
사례	1	1.594	.2067	
범주*평정자	14	8.432	.8656	평정자 2-4간
범주*사례	7	2.090	.9547	
평정자*사례	2	3.540	.1703	
범주	7	42.111	.0000	
평정자	2	32.933	.0000	
사례	1	2.379	.1230	
범주*평정자	7	6.759	.4544	평정자 3-4간
범주*사례	7	3.423	.8433	
평정자*사례	1	2.228	.1355	
범주	7	27.668	.0003	
평정자	1	7.925	.0049	
사례	1	1.159	.2817	

#### 4. ICF 분석에서 평정자간 신뢰도

4명의 평정자들은 Wish, Fear 두 요소에서 각각 표준화된 40개씩의 범주에 따라 평정하였고, 평정결과는 빈도로 정리되었다(표2와 표3 참조, 표준화된 소망과 공포목록은 Erikson이 기술한 사회심리발달 단계에 따라 총 8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면관계상 각각 빈도가 높은 4단계까지만 제시). 본 연구에서는 평정자간 신뢰도의 자료가 빈도자료이기 때문에 선형로그분석(log-linear analysis)을 하였다. 분석은 평정자 1과 2, 1과 3, 1과 4, 2와 3, 2와 4, 3과 4로 나누어 하였는데 모두 같은 결과가 산출되었다. 즉 평정자간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4는 위계적 선형로그분석에 의해 산출된 Wish의 1단계 이원상호작용효과들에 대한 결과이다. Wish의 삼원상호작용효과는 모든 단계에서 모든 평정자들의 비교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평정자들이 각 단계의 범주와 사례에서 안정적이라는 것(신뢰로움)을 의미한다. 2

단계에서 8단계까지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ear의 이원상호작용효과와 삼원상호작용효과 역시 모든 단계에서 모든 평정자들의 비교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평정자들이 각 단계의 범주와 사례에서 안정적이라는 것(신뢰로움)을 의미한다(결과표 생략).

#### 5. ICF 다섯가지 요소의 사례간 차이검증(비교)

ICF의 다섯가지 요소에서 사례간에 내용의 차이가 나는지를 각 요소별로 비교했다. 동일 사례에서 팀간의 유사성정도(A : 3명 평정자의 유사성평정 점수의 합)와 동일팀의 다른 사례에 대한 유사성정도(B)에서의 차이를 보았다. A가 B보다 높으면 사례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5를 보면 5개 요소중 w를 제외한 4가지 요소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임으로써 사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ICF의 다섯가지 요소에서의 사례간 비교

요 소	사 례	평 균	표준편차	t	p
가. Wish	6	5.5000	1.225	.52	.615
	6	5.1667	.983		
나. Fear	6	5.8333	.753	.26	.000
	6	5.6667	1.366		
다. Resultant	6	5.1667	.983	1.85	.000
	6	3.5000	1.975		
라. Stressor	6	5.0000	1.200	1.42	.000
	6	3.5000	1.643		
마. Adaptation	6	3.3333	2.066	-.15	.000
	6	3.5000	1.761		
바. 전체	30	4.9667	1.650	1.59	.199
	30	4.2667	1.760		

## 6. ICF의 요소와 PF 요소간의 비교

### 1) ICF의 Wish와 PF의 Goal의 유사성 비교

표 6은 ICF의 Wish와 PF의 Goal의 요약내용을 비교쌍으로 제시한 후 그 유사성 정도를 평정하여 집단간 t-검증한 것이다.

집단 가는 단일한 신체화 사례를 다른 방법으로 분석한 것과 다른 사례 즉 신체화와 우울증 사례를 다른 방법으로 분석한 것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본 것이다. 분석 결과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신체W-신체G 유사성 정도가 신체W-우울G 유사성 정도보다 높다면 ICF의 W와 PF의 G이 유사한 내용을 측정한다는 의미). 이 결과는 단일한 사례를 다른 방법으로 분석한 것과 통제 집단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집단 나는 분석 결과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 다는 단일한 우울증 사례를 다른 방법으로 분석한 것과 다른 사례 즉 신체화와 우울증 사례를 다른 방법으로 분석한 것 사이의 차

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본 것이다. 분석 결과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 라는 분석 결과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ICF의 Wish와 PF의 Goal 비교는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W와 G가 유사한 내용을 측정한다고 볼 수 없다.

### 2) ICF의 Fear와 PF의 Obstruction 비교

ICF의 Fear와 PF의 Obstruction을 비교한 결과 집단 다에서만 경향성을 보일뿐( $p < .059$ ) 나머지 세 집단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결과표 제시는 생략).

### 3) ICF의 Avoidant와 PF의 Obstruction 비교

표 7은 ICF의 Avoidant와 PF의 Obstruction간의 비교이다.

집단 나, 다, 라는 분석 결과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Avoidant와 Obstruction 비교는 집단 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표 6. ICF의 Wish와 PF의 GOAL 비교

집 단	사 례	평 균	표준편차	t	p
가. 신체화W-신체화G	6	4.0000	2.366	1.39	.196
	신체화W-우울증G	6	2.3333		
나. 신체화W-신체화G	6	4.0000	2.366	-.12	.908
	우울증W-신체화G	6	4.1667		
다. 우울증W-신체화G	6	4.1667	2.483	.23	.821
	우울증W-우울증G	6	3.8333		
라. 신체화W-우울증G	6	2.3333	1.751	-1.21	.254
	우울증W-우울증G	6	3.8333		

표 7. ICF의 Avoidant와 PF의 Obstruction 비교

집 단	사 례	평 균	표준편차	t	p
가. 신체화A-신체화O	6	6.1667	.753	2.01	.072
신체화A-우울증O	6	4.0000	2.530		
나. 신체화A-신체화O	6	6.1667	.753	2.89	.016
우울증A-신체화O	6	4.0000	1.673		
다. 우울증A-신체화O	6	4.0000	1.673	-4.03	.002
우울증A-우울증O	6	6.8333	.408		
라. 신체화A-우울증O	6	4.0000	2.530	-2.71	.022
우울증A-우울증O	6	6.8333	.408		

보임으로써 두 요소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 주  
고 있다.

4) ICF의 Avoidant와 PF의 Test 비교

논 의

ICF의 Avoidant와 PF의 Test를 비교한 결  
과 집단 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결  
과표 제시 생략).

본 연구에서는 PF와 ICF 두가지 공식화방  
법을 동일한 사례에 적용시켜 그 결과에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히고 분석과정에서 드러  
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몇가지 문제들에 관해 논의하  
고자 한다.

5) ICF의 Stressor와 PF의 Trauma 비교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Stressor와 Trauma  
비교는 집단 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하

표 8. ICF의 Stressor와 PF의 Trauma 비교

집 단	사 례	평 균	표준편차	t	p
가. 신체화S-신체화T	6	5.6667	1.751	4.82	.001
신체화S-우울증T	6	2.0000	.632		
나. 신체화S-신체화T	6	5.6667	1.751	2.38	.039
우울증S-신체화T	6	3.5000	1.378		
다. 우울증S-신체화T	6	3.5000	1.378	-1.14	.280
우울증S-우울증T	6	4.5000	1.643		
라. 신체화S-우울증T	6	2.0000	.632	-3.48	.006
우울증S-우울증T	6	4.5000	1.643		

이전의 연구(1994)에서와 마찬가지로 PF의 평정자 2인 간의 신뢰도는 낮았다. Cronbach's alpha 계수로 산정된 세명 평정자 간의 일치도는 요소에 따라 일부는 2인 간 일치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두번의 연구에서 모두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PF 분석방식을 사례에 그대로 적용시키는데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분석내용이나 지침, 평정자 훈련 등의 문제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논의의 마지막 부분 참조).

40개의 표준화된 범주목록에 따라 다시 분석된 ICF의 소망과 공포의 결과는 빈도로 정리하여 평정자간의 신뢰도가 산출되었다. 소망과 공포의 각 단계별로 나누어 실시한 분석에서 모든 단계에서 평정자간의 차이가 없으므로 평정자들이 각 단계의 범주와 사례에서 안정적임이 드러났다. ICF 공식화방법을 사례에 적용시킨 첫 시도에서 이 방법이 신뢰롭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무의식적인 케소망과 공포 등을 포함하는 앞으로의 포괄적인 사례공식화 연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평정자간의 신뢰도 산출에서 표준화된 목록이 없는 나머지 세요소, 즉 증상적, 회피적 산물이나 스트레스, 적응수준 등에 대해서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이상의 세요소에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지침과 내용의 범주화를 통해 지나친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ICF의 5가지 요소의 내용이 사례 간

에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한 결과 소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요소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4개 요소에서는 ICF의 분석방법이 사례간의 차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5 참조). 그러나 5개 요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소망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ICF방법의 소망내용이 타당한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의 CCRT 연구(1994)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wish는 내담자가 달라도 동일한 경향이 있었고(예: 사랑받고 싶다, 나를 표현하고 싶다 등등) 부차적인 wish에서만 사례간의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에서의 특징적인 행동패턴과 중심되는 소망과 공포동기를 밝혀내고자 하는 김수진(1996)의 연구에서도 우울집단이나 비우울집단이나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CCRT의 소망항목은(물론 두 집단간에 빈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다' '가까이하고 수용받고 싶다'였다. 이 연구의 ICF분석 결과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소망은 우울집단이나 비우울집단 양쪽에서 동시에 빈도가 높은 항목이었다. CCRT의 소망이나 ICF의 소망에서 집단이나 내담자가 달라도, 즉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달라져도 주된 소망내용은 일차적으로는 누구나 '사랑받고 이해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나 호소하는 문제가 달라도 내면적인 소망은 여러 내담자에서 상당히 유사한 것이 아닌가, 특히 기본적인 몇가지 중요한 소망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

음이 시사된다. 이점을 고려해볼 때 내담자간에 ICF소망의 내용에서 차이가 없음은 ICF 방법의 타당도 여부로만 생각될 수는 없을듯하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내적 소망은 내담자 간에 중복되는 점이 많으나 그밖의 요소들 즉 공포, 증상이나 회피적 결과, 스트레스, 적응수준 등에서는 내담자의 특징적인 차이가 ICF의 분석결과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세번째, 표6에서 보듯이 ICF의 소망(wish)과 PF의 목표(goal)의 비교에서는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지 않음으로써 wish와 goal이 관련된 특성을 다룰것이라는 예상은 입증되지 못했다. 이전의 연구에서 CCRT의 wish와 PF의 goal간에(김수현,1994) 그리고 CCRT의 wish와 ICF의 wish간에(김수진, 1996)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때 PF의 goal과 ICF의 wish 역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유로 다음의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두 요소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차이가 더 클수도있다는 점이다. 분석지침이나 분석된 결과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PF의 goal에서는 내담자의 (무의식적)소망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면의 소망보다는 치료를 통해 내담자가 달성해야 할 치료목표가 표면적으로는 더욱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무의식적인 내면적 소망이나 갈등을 다루고 있는 ICF의 wish와는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PF의 goal에서는 분석가가 누구인가에 따라 지향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겠다. 또 한가지 점은 두가지 공식화방법의 안정

성 정도와 관련될 수 있겠다. 즉 신뢰로운 방법임이 입증된 CCRT의 요소(하정혜, 1994)와 비교될 때는 차이나 유사성이 크지 않더라도 잘 반영이 되는 반면 아직도 보완될 부분이 많고 또 무의식적 소망이나 공포 등 주관적인 추론이 많이 필요한 PF 방법과의 비교는 그 결과가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네번째로, ICF의 공포와 PF의 장애요인 간의 유사성을 비교한 결과 두 요소는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ICF의 회피적 결과와 PF의 장애요인은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드러났다(표7 참조). 집단 가에서 우울증의 장애요인이 통제집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경향성을 보인 것만 제외). 장애요인이 ICF의 공포보다는 회피요소와 더 유사하다는 결과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요인은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병적믿음을 말하지만 이 믿음과 연관된 부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행동의 동기가 되는 공포보다는 갈등의 인식을 막고 회피함으로써 오는 회피적결과(산물)와 공통점이 있는 듯하다. PF의 장애요인이 ICF의 공포보다는 회피적 결과와 내용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은 이전의 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은 본 연구의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PF에서는 내담자가 비합리적으로 두려워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는 회피행동과 장애가 장애요인 요소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ICF에서는 두려움과 회피적 결과가 분리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다섯번째로, ICF의 회피적 결과와 PF의 테스트 비교에서는 우울증의 회피적 산물이 통제

집단으로 사용되었을 때만 두 요소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담자가 평상시에 회피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상담시간에 상담자 앞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분석을 실시했으나 나머지 세 집단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둘 사이의 유사성은 논하기 어렵게 되었다. 내담자가 상담 중에 상담자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아마도 자신의 회피반응을 그대로 반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반응을 위해 전혀 반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ICF의 스트레스와 PF의 외상적 경험의 비교는 표8에서와 같이 집단 다를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에서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담자의 갈등을 활성화시키는 스트레스원은 병적인 믿음이나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사건이나 경험인 외상적경험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듯하다. 용어정의 방법과 구체적인 초점은 조금 다르지만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대략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두 요소를 분석해내는 듯하다.

이상의 결과들을 간략히 다시 요약해 보면, ICF방법을 통한 분석결과 다섯가지 요소 중에 소망을 제외한 나머지 네개 요소에서 사례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ICF소망과 PF목표, ICF공포와 PF장애요인, ICF회피적결과와 PF테스트(일부만 유의미)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ICF회피적결과와 PF장애요인, ICF스트레스와 PF외상적경험 간에는 유사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각 방법의 5개 요소 중에서 두개의 요소 간에 공통성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공식화 내용 중 가장 중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망과 공포, 목표 간의 관계가 불분명함으로써 아직까지도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특히 소망의 내용이나 분석기준이 더욱 구체화되어 특정한 내담자의 특징적인 소망내용이 더 잘 반영되며 위에서 언급된 요소들 간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또한 합치거나 분리시켜야 할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PF의 5가지 요소들과 ICF의 5가지 요소들에 따라 내용을 분석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PF의 목표에는 소망요인과 더불어 치료에서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포함되며, 장애요인 역시 잘못된 믿음이나 공포 외에 그 행동적인 산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ICF의 소망이나 공포요인이 비교적 순수하게 소망과 공포동기를 다루는데 비해 PF의 요인들은 한가지 요소안에 복합적인 요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점은 PF의 분석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번에 한가지 내용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지시와는 일치되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바로 이점이 PF 분석에서 평정자 간의 일치도를 낮추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PF에서 요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나 장애요인 외에 통찰이나 테스트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PF에서는 심리치료 전반에 걸쳐 치료자가 고려해야 할 점에 관심이 있는 듯하다. 반면 ICF에서는 소망과 공포외에 스트레스, 증상적 회피적 산물, 적응수준 등을 분석하는 점으로 보아 심리치료 초기의 내담자 평가에 더 관심을 가지



고 이후의 치료전략이나 목표보다는 현재의 내담자 상태의 파악에 더욱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점을 고려할 때 상담초기에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공식화방법으로는 PF방법보다는 ICF방법이 더욱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수진(1996). 우울한 대학생집단의 대인관계패턴과 내적 갈등. 석사학위 청구논문. 충북대학교
- 김수현(1994). 정신역동적 사례공식화 : CCRT와 PF를 중심으로. 1995년 한국심리학회 발표논문, 학생생활연구, 19, 충북대학교
- 하정혜(1994). 상담과정에서의 내담자 대인관계 패턴 변화에 관한 시계열 복수사례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Barber, J. P., & Crits-Christoph, P. (1993). Advances in measures of psycho-dynamic Formul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574-585.
- Barber, J. P., & Crits-Christoph, P., & Luborsky, L. (1990). A guide to the standard categories and their classification. In L. Luborsky & P. Christoph, *Understanding transference : 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Method*(pp37-50). New York: Basic Books.
- Collins, W. D., & Messer, S.(1991). Extending the plan formulation method to an object relations perspective: Reliability, stability, and adaptability. *Psychological Assessment*, 3, 75-81.
- Crits-Christoph, P., Luborsky, L., Dahl, L., Popp, C., Mellon, J., & Mark., D. (1988). Clinicians can agree in assessing relationship patterns in psychotherapy: 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Meth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 Crits-Christoph, P., & Demorest, A.(1988). List of standard categories (Edition 2).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Medicine.
- Curtis, J., & Silberschatz, G. (1986). Clinical implications of research on brief dynamic psychotherapy: Formulating the patient's problems and goals. *Psychoanalytic Psychology*, 3, 13-25.
- Curtis, J. T., Silberschatz, G., Sampson, H., & Weiss, J. (1992). The plan formulation method.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Erikson, E. H.(1963).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Horowitz, M.(1989). Relationship schema formulation: Role relationship models and intrapsychic conflict. *Psychiatry*, 52, 260-274.
- Klein, M. H., Mathieu-Coughlan, P., & Kiesler, D. (1986). The Experiencing Scale. In L. S. Greenberg & W. M. Pinsof(Eds.). *The Psychotherapeutic Process: A research handbook*(pp.21-71). New York: Guilford Press.
- Luborsky, L.(1976). Helping alliances in psychotherapy: The groundwork for an study of their relationship to its outcome. In J. Claghorn (Eds.), *Successful psychotherapy* (pp.92-116). New York: Brunner /Mazel.
- Luborsky, L.(1977). Measuring a pervasive psychic structure in psychotherapy: 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In N. Freedman & S. Grand(Eds.), *Communicative structures and psychic structures*(pp. 367-395). New York: Plenum Press.
- Luborsky, L., Crits-christoph, P., & Mellon, J.

- (1986). Advent of objective measures of the transference concep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No.1, 39-47.
- Luborsky, L.(1990).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idea, In Luborsky & Crits-Christoph,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 L., Barber, J., & Crits-Christoph, P. (1990). Theory-based research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281-287.
- Luborsky, L., & Crits-Christoph, P.(1990).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 L., Crits-Christoph, P., Friedman, S., Mark, D., & Schaffler, P.(1991). Freud's transference template compared with 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CCRT): illustrations by the two specimen cases, In Horowitz, M(Eds.) *person schemas and maladaptive interpersonal patterns* (pp 167-195).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Malan, D. H.(1963). *A study of brief psychotherap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Mann, J.(1973). *Time-limited psychotherap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mor, J.(1979). Short-term dynamic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149-155.
- Perry, J. C.(1990a). *The psychodynamic Rating Scales, version 3*. Copyright J. C. Perry, M. D., Cambridge MA.
- Perry, J. C.(1990b). *Wishes and Fears: A Standardized List for Assessing Dynamic Motives*. Copyright J. C. Perry, M. D., Cambridge MA.
- Perry, J., Augusto, F., & Cooper, S.(1989). The assessment of psychodynamic conflicts: I. The reliability of an ideographic method. *Psychiatry*, 52, 284-301
- Perry, J., Luborsky, L., Silvershatz, G., & Popp, C. (1989). An examination of three methods of psychodynamic formulation based on same videotaped interview, *Psychiatry*, 52,302-323
- Perry, J., Cooper, A. M., Michels, R.(1987). The psychodynamic formulation: Its purpose, structure, and clinical ap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 543-550
- Sifneos, P. E.(1973). *Short-Term psychotherapy and emotional crisi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Silberschatz, G., Fretter, P., & Curtis, J.(1986). How do interpretations influence the process of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5), 646-652
- Weiss, J., Sampson, H., & the Mount Zion Psychotherapy Research Group. (1986). *The psychoanalytic process: Theory, clinical observations and empirical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 A STUDY ON PSYCHODYNAMIC CASE FORMULATION BASED ON PF AND ICF

Soohyun Kim

The interest in brief psychotherapy has increased due to the shortage in the number of professionals and economic problems. Compared to longterm therapy, brief therapy requires especially the focusing of therapy due to its time limit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brief therapy to have an accurate evalu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patient in the early stage, that is, a precise case formulation in early stage of treatment.

As a pilot study, this paper attempted to apply two formulation methods - PF and ICF - to one psychosomatic case and one depression case as treated by the psychodynamically oriented psychotherapist and compared the formulation results with a focus on several factors a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analysis. What was revealed as a result was that ICF has a considerable interrater reliability while PF has low reliability. It was also indica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contents between two cases in 4 components of ICF except wish component. In the similarity comparison between components of PF and ICF, the following are found : There isn't any similarity between PF goal and ICF wish, and between PF obstruction and ICF fear. While there is similarity between PF obstruction and ICF avoidant and between PF trauma and ICF stressor.